

장편소설 《아라리 난장》(문이당)을 펴낸 김주영씨(61)는 “할 말이 별로 없는데...”라며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명석을 칼자 소설과 자신에 관한 얘기를 또박또박 들려 줬다.

“이 소설은 뿌리 뽑힌 자들에 대한 제 나름의 관심 표명입니다. 주요 등장인물은 하나같이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지요. 주인공 한창범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아내에게 이혼당한 절망적인 처지입니다. 여기에 다고아원 출신의 두사람과 역시 아내에게 버림받은 사람, 그리고 날건달들이 소설을 이끌어가지요.”

‘역사가 배설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그런데 김주영씨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본다. 절망 속에서 끈질긴 생명력을 발휘하고, 항상 희망을 잃지 않으며, 뜨거운 가슴과 활력·역동성을 지닌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진면목이라는 얘기다. 때문에 ‘뿌리 뽑힌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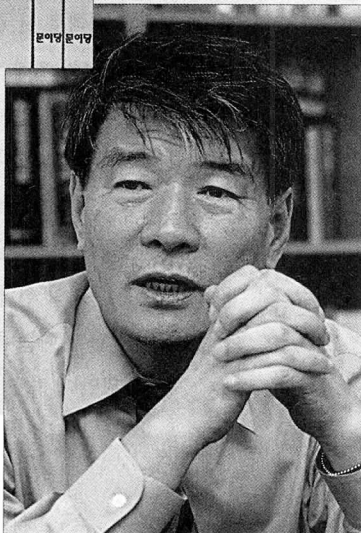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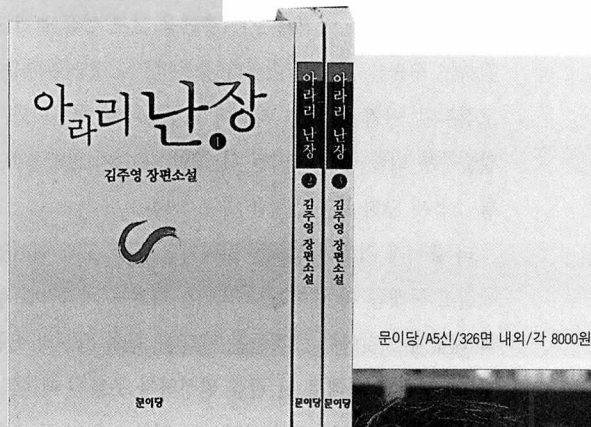
소외된 자들에 대한 김주영씨의 관심은 고집스러울 정도다. 《객주》 이후 발표된 작품은 모두 역사의 뒤편에 있는 사람을 다루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척》《야정》《천둥소리》《흥어》 등은 역사의 전면에 나선 사람보다는 ‘역사가 배설한 사람들’을 통해 희망을 확인한 소설이다. 장터를 배경으로 장동뱅이의 삶을 묘사한 점도 일치한다. 《아라리 난장》 또한 장터가 소설의 공간적 배경이다.

“장터는 서민과 하층민의 생활 모습을 아주 손쉽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훌쩍 벗은 생활상이 드러나는 곳이라고 할까요. 서민들의 애환이 녹아 있는 장터는 민족의 성품을 가까운 거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장소입니다.”

《객주》를 쓰고 난 다음부터는 전국 각지의 장터를 돌아다니는 것이 아예 일과가 됐다. 그래서 이번 소설을 쓰기 위해 따로 취재할 필요가 없었

뿌리 뽑힌 사람들의 삶 그린 우리시대의 ‘객주’

《아라리 난장》 펴낸 김주영씨



김주영씨

“동서로 갈라진 정서적 갈등을 소설로 해석해봤습니다. 내 가슴 속에는 뭐가 있고, 저 사람 심중에는 무엇이 있는지 탐지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 소설이 남북통일을 이루기에 앞서 뜨거운 가슴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인천과 중국 웨이하이를 연결하는 국제 여객선의 첫 취항 때 초대받았습니다. 황해를 건너며 이 배를 소재로 한 소설을 쓰겠다고 마음 먹었지요.”

작가 특유의 걸쭉한 입담 또한 여전하다. ‘발 짝을 때어놓을 때마다 미주알에서 뉘뉘이 들락 날락하도록’ 이라거나, ‘재수 없는 계집은 봉긋방에 누워도 고자 곁에 눕는다’ 등의 질펀한 육담이 도처에 있다. 그 가운데서도 IMF 환란의 대처 방식을 비꼬는 변석태의 일갈은 더욱 인상적이다. ‘아랫돌 빼어 윗돌 괴고 윗돌 빼어 다시 아랫돌 괴는 꼴이지.’ 이 말은 작가의 꾸짖음으로 들린다.

“겉보기로는 환란을 극복한 것처럼 보이나 우리 경제가 근본적으로 나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증환자를 응급처치로 치료한 형국이지요. 게다가 IMF를 겪으며 입은 사람들의 상처도 아물지 않았고, 붕괴된 가정도 복구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소설의 결말은 희망적이다. 서로 다른 지역 출신들이 우여곡절 끝에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하는 것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동서로 갈라진 정서적 갈등을 소설로 해석해 봤습니다. 내 가슴 속에는 뭐가 있고, 저 사람 심중에는 무엇이 있는지 탐지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던 거지요. 제 소설이 남북통일을 이루기에 앞서 뜨거운 가슴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 최성일 기자

다. 틈틈이 장터에서 녹취한 팔도 사투리를 풀어 냈기 때문이다. 인접지역에서 열리는 장날을 따라가다 보면 종내는 아는 체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그가 소설가라는 사실은 모른다.

“장동뱅이에게서 저의 모습을 봅니다. 장터를 전전하며 벌이는 장사는 이문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네들이나 나나 역마살이 뻗쳐 그렇게 사는 것이겠지요.”

발품 판 흔적과 걸쭉한 입담 돋보여

이 소설은 발품을 판 흔적이 역력하다. 지세에 관한 묘사는 인문지리지를 방불케 하는데, 한반도 바깥의 묘사도 마찬가지다. 러시아 연해주에 위치한 ‘포시에트’의 풍경도 아주 사실적이다. 포시에트는 해외를 오고가는 보따리 장수들의 거점으로 설정됐다. 《아라리 난장》은 해외 보따리 장수의 세계를 다룬 보기 드문 소설이다.